



급부상하는 콘텐츠보안 시장 “특화 솔루션 통한 전쟁 점화”

전자문서보안시장 중심 ... 참여업체 증가속 수익성 타진 분주

취재 김심훈 기자

콘텐츠보안시장에 전문이 감돌고 있다. 최근 콘텐츠보안이 부상하게 된 이유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정보가 기업 가치 평가의 중심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이런 중요 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데이터들은 정보를 유출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반면 디지털화된 정보는 접근이 매우 용이하며,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단 몇 초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유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들 콘텐츠보안에 눈들려

특히 정보 유출 경로가 매우 다양해져 정보유출에 대해 거의 무방비상태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콘텐츠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또 만일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콘텐츠보안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보안은 방화벽이나 VPN, IDS 등과 같이 주로 네트워크나 시스템 상에서 외부의 침입을 막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최근 외부침입자나 내부자가 불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보안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보안을 비롯해 DRM, 워터마킹, e-메일보안솔루션, 시큐어OS

등 콘텐츠 자체에 대한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솔루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런 보안분야를 콘텐츠보안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파수닷컴, 마크에니, 아르파, 사파소프트, 소프트캠프, 안철수연구소, 비시큐어, 시큐아이닷컴 등이 콘텐츠보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제이랜드소프트, 테르텐, 필크립, 킹스정보통신, 하이랜드소프트웨어, 한국씨포, 디지털리얼테크놀러지와 나일소프트를 통해 국내에 진출한 외산업체인 핫커닷컴 등도 각각 특화된 콘텐츠보안솔루션을 내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현재 콘텐츠보안 업체들은 콘텐츠보안 영역을 DRM과 전자문서보안 뿐만 아니라 워터마킹과 시큐어OS도 그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DRM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복사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술을 말한다. DRM은 멀티미디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주로 멀티미디어 유료콘텐츠에 적용된다.

DRM은 콘텐츠를 암호화해 전달하며 적법한 사용자만이 암호화된 콘텐츠를 사용하게 해 준다. 또 콘텐츠의 사용 기간 및 횟수,

제3자 양도 등의 사용 조건도 설정해 주며 지불시스템과 연동, 콘텐츠 사용에 대한 과금까지도 처리해준다. 전자문서보안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전자문서정보의 위조·변조 및 불법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준다. 워터마킹은 주로 콘텐츠의 불법 복제나 이용을 방지해 콘텐츠 작성자나 판매자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시큐어OS는 운영체제 수준에서의 콘텐츠보안기능을 제공한다.

주 격전지 '전자문서보안시장'

국내 콘텐츠보안업체들이 올해 공통적으로 노리고 있는 부분은 주로 전자문서보안시장이다. 이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문서보안시장이 수익성도 좋고 또 시장성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시장공략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존의 방화벽이나, VPN, IDS 등과 같은 솔루션이 외부의 침입에만 치중했던 반면 전자문서보안은 오히려 내부자에 의해 일어나는 정보침해를 막는 보안이다. 전자문서보안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암호화와 사용자 인증을 비롯해 직책과 직무에 따른 문서사용의 권한부여, 문서의 열람·편집·복사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문서별·그룹별·개인별 접근권한 관리와 함께 문서출력을 방지하거나 출력시 출력자의 인적사항이나 회사 로고 등을 워터마킹을 통해 삽입해주고, 문서의 유효기간 및 폐기기한 설정, 반출 및 사용한 내역에 대한 로그기록, 리포트 기능 등도 제공한다.

전자문서보안은 기업의 내부자나 산업스파이에 의한 정보유출이 전체 정보보안사고의 70%를 넘어선다는 조사 보고가 있듯이 중요성이 매우 높다. 또한 기업들이 지식경영체제로 탈바꿈하면서 KMS나 EDMS, 그룹웨어, e-메일 등을 많이 사용하게되고, 지식을 서로 공유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됐다.

실제 일부 벤처기업에서 애써 연구한 결과물들을 직원이 그대로 가지고 나가 회사를 차린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전자문서보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자문서보안제품의 주요 수요처는 KMS·EDMS·그룹웨어 등을 사용하는 중앙정보시스템이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금융·상업문서관리가 필요한 금융기관, 군·경 등과 같은 보안이 필요한 특수기관, 협업을 해야 하는 제조업체의 연구개발실, 그룹사 연구소, 고객사에 콘텐츠파일을 보내야 하는 광고기획사와 같은 곳을 들 수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제조, 금융기관, 행자부 및 국방부 등의 정부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보안솔루션을 찾고 있으며, CAD파일 같은 문서와 기획안 등의 기업 내부 문서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곳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올해 국내

전자문서보안시장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나 국내 대기업 등에서 정보유출과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지면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 콘텐츠보안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분류하면 크게 DRM업체와 PC보안업체, 그리고 PKI기반업체로 나뉘어지고 있다.

먼저 DRM기술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파수닷컴, 마크애니, 아르파, 사파소프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존에 주력해 오던 DRM시장이 예상만큼 커지지 않자 사업방향을 전자문서보안으로 전환한 케이스다. 파수닷컴의 한 관계자는 DRM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아직도 유료콘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콘텐츠산업이 부흥해야 콘텐츠보안시장도 열릴 것이라 말했다.

특화전략 통한 시장 확보 경쟁

파수닷컴은 지난해부터 문서보안제품을 출시하고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삼성 구조조정본부 내 인사관련자료, 삼성전자 감사팀 감사문건, 삼성전자런던연구소, 삼성SDI의 캐드문서 등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소프트캠프는 지난해 중반 사업에 뛰어 들어 국가정보기관의 문서보안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SK텔레콤과 SK, 하나은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해오던 PC보안과 전자문서보안은 시장자체가 다르다는 분석하에 PC보안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전자문서보안은 기업들이 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한국씨포와 제휴를 맺고 기존 암호화제품인 엔디에 한국씨포의 문서출력보안솔루션인 마크프린트를 접목해 전자문서보안시장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비시큐어, 시큐아이닷컴 등도 시장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PKI의 기본적인 인증기술 등을 콘텐츠보안에 접목하려는 방향을 잡고 있다.

하이랜드소프트웨어는 PDF파일보안솔루션인 콕스가드(CoxGuard)를 보유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PDF파일에 암호화알고리즘을 적용, PDF파일을 임의로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프린트도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문서의 조회 회수를 제한하거나 조회시효가 소멸하는 시점을 설정할 수도 있다.

비시큐어는 PKI기반의 P2P방식의 DRM솔루션과 핵심 엔진제품인 비씨큐어 EDS, 전자문서보안솔루션인 다큐먼트 프로텍터, E메일보안솔루션인 메일 프로텍터, 웹 문서보안솔루션인 웹 프로텍터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밖에 나일소프트를 통해 국내에 진출한 외산업체인 핫라커닷컴과 제이랜드소프트, 테르텐, 필크립, 킹스정보통신, 하이랜드소프트웨어, 한국씨포, 디지털리얼테크놀로지 등도 다양한 콘텐츠보안솔루션을 내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